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 최영심 작,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성당, 서울 혜화동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사십 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마태 4,1-4)

**[제1독서]** ..... 창세 2,7-9; 3,1-7

**[제2독서]** ..... 로마 5,12-19 또는 <로마 5,12,17-19>

**[화답송]** ..... 시편 51(50),3-4.5-6 가. 12-13.14와 17  
(◎ 3가 참조)

**[복음 환호송]**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 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씀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복음]** ..... 마태 4,1-11

○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

**[성가 안내]**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

- 입당성가: [117] 지극한 근심에
- 봉헌성가: [221] 받아주소서  
[213]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 성체성가: [498] 예수여 기리리다  
[173] 사랑의 주여 오소서
- 파견성가: [124] 은혜로운 회개의 때

## 예수님께서서는 사십 일을 단식하시고 유혹을 받으신다.

- <sup>1</sup>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 <sup>2</sup> 그분께서는 사십 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 <sup>3</sup>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 <sup>4</sup>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sup>5</sup>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sup>6</sup>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 <sup>7</sup>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 <sup>8</sup>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며,
- <sup>9</sup>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 <sup>10</sup>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 <sup>11</sup>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 †묵상

사순 시기 첫 번째 주일에 듣는 말씀의 주제는 ‘유혹’입니다. 인류의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처럼 된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저지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에 앞서 악마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악마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빵으로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영광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시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원은 복음 선포와 행적 그리고 십자가의 순명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세상의 것처럼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유혹자는 사람들을 나쁜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렇기에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첫 인간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또한 언제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유혹에 약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유혹이 있다는 것에, 자주 유혹을 받는다는 것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혼자 충분히 유혹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약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할 때, 유혹을 물리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청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유혹을 통해서도 다시 깨달습니다

(한재호 루카 신부)



### The Light is ON for You

*Celebrate the Sacrament of Reconciliation*

사순 시기 동안 알링턴 교구와 워싱턴 대교구의 모든 성당은 매주 수요일 오후 6:30부터 오후 8시까지 고해성사를 실시합니다. 가까운 성당을 찾아 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During Lent, all Catholic Churches in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and Diocese of Arlington will be open for Confessions and quiet prayer every Wednesday evening.

#TheLightIsON

##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마태 4,1)

광야에서 예수님은 참 빛이신 하느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 바로 뒤에는 음산한 느낌을 주는 악마가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빛 한가운데 있는 것과는 달리 악마는 어둠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악마는 얼굴을 예수님 가까이 대고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처럼 보인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마태 4,3) 예수님의 발아래에는 빵처럼 보이는 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 최명심 작

유리화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 은 아래 복음을 토대로 제작됐다.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사십 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마태 4,1-4)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 은 유리화 가운데서도 매우 특별한 것에 해당된다. 일반 본당에서 이 같은 주제의 유리화가 등장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작가는 이 성당이 신학생들의 전례 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했을 것이다. 신학생들은 이곳에 모여 아침기도를 바치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기도를 바치며 하루를 마감한다. 그들은 나날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지만 동시에 그분처럼 나날이 악의 유혹도 받으며 번민 속에 살아간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신학생들이 예수님처럼 하느님께 대한 신앙 안에서 모든 유혹을 극복하고 사제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랐을 것이다.

며칠 전, 겨울 햇살이 눈부시던 오후에 신학교 성당에 가서 해가 다 질 때까지 오랫동안 이 유리화를 살펴보았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여전히 유혹을 받으시는 것 같았고 악마도 변함없이 그분을 끈질기게 유혹하는 것처럼 보였다. 일찍이 예수를 유혹했던

**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느님과 강하게 일치하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빛을 향해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있듯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살 때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가꿀 수 있을 것이다.**

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마음을 흔들어 놓으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있다.

악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들 가까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예수님의 바로 뒤에 있는 악마와 발아래에 있는 돌은 세상의 모든 유혹이 얼마나 우리들 가까이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유혹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생 동안 받는 유혹 가운데서도 가장 큰 것이다.

불꽃처럼 타오르며 한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악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강하게 일치하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빛을 향해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있듯이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살 때 우리는 세상의 이런 저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가꿀 수 있을 것이다.

〈정용모 신부의 '아름다운 성화, 아름다운 인생', 가톨릭신문〉

### 목 상

####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무엇이 중요한가’가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이다.

음식도 생명도 권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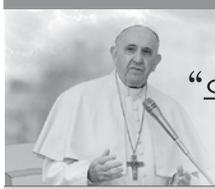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물어오는 것이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마태 4,4)



〈임의준 신부〉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2코린 5,20)

올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 죽음과 부활의 위대한 신비를 경축하고자 준비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신비는 개인으로도 공동체로도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주축을 이룹니다.

### 1. 회개의 근본인 파스카 신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예수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 곧 복음 선포(Kerygma)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데에서 솟아납니다. 이번 2020년 사순 시기를 맞이하여 저는, 젊은이들에게 보낸 저의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Christus Vivit)의 한 구절을 모든 그리스도인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활짝 벌리신 두 팔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다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려 할 때에,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굳게 믿으십시오. 그와 같은 위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대하여 묵상하고 그 피로 깨끗해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123항). 예수님의 파스카는 이미 지난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파스카는 성령의 권능으로 언제나 현재가 되어,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에 계시는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보고 만져볼 수 있게 해 줍니다.

### 2. 회개의 시급성

파스카 신비의 은총으로 우리는 하느님 자비를 입었습니다. 참으로 하느님 자비의 체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쳐”(갈라 2,20)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관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분과의 대화는 벗끼리 나누는 허심탄회한 대화입니다. 그러하기에 사순 시기에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느님 보시기에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 속을 꿰뚫고 무디어진 우리 마음을 다듬어 주어, 우리가 더더욱 하느님께 그리고 하느님 뜻으로 돌아서게 해 주는 기도입니다.

이 은혜로운 시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듯이(호세 2,16 참조)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자신을 내어 맡깁시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는 우리 신랑이신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분 목소리가 우리 안에 더욱 깊이 더욱 기꺼이 되올려 퍼지게 할 수

있습니다.

### 3. 당신 자녀들과의 대화를 열렬히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

교회와 세상의 삶과 마찬가지로 우리네 삶속에는 이따금 비극적으로 악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의 행로를 바꿀 수 있도록 주어지는 이러한 기회는, 끊임없이 우리와 구원의 대화를 나누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강한 뜻을 드러내 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모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신 분이십니다(2코린 5,21 참조).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는 성부의 이 구원 의지에 따라, 성자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아드님의 파스카 신비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자 하십니다.

### 4.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하는 부(富)

파스카 신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들 안에 아로새겨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상처에 대하여 우리도 같은 아픔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선의의 사람들에게 희사(喜捨)를 통하여 그들의 재산을 가장 궁핍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일깨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사는 더 공정한 세상을 이룩해 나가는 데에 개인이 참여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자선의 나눔은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해 줍니다.

성모님의 전구를 통하여, 사순 시기를 거행하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어 하느님과 화해하고, 우리 마음의 눈을 파스카 신비에 고정시키며, 회개하여 하느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2020년 월별 기도지향

#### 2월 보편지향 : 이민자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기

우리 형제자매 이민자들, 특히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부르짖음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이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Universal prayer intention : **Listen to the Migrants' Cries**

We pray that the cries of our migrant brothers and sisters, victims of criminal trafficking, may be heard and considered.

# FIRST SUNDAY OF *Lent*

March 1, 2020

## What Happens in Lent?

In today's Gospel story, Jesus goes out into the desert to fast and pray for forty days. In the forty days of Lent, the Church asks us to **fast, give alms, and pray**.

In Lent we don't eat meat on Fridays. Many people give up things like candy or dessert for all of Lent. When we give up food that we like, it reminds us that food isn't the only thing we need- we need God too!



**Giving alms** means giving money or things to the poor or the Church. God lets there be people who need our help

so that we can become better by helping them!

The third thing that we should do in Lent is **praying**. You could say an extra prayer every day-maybe an "Our father" or a "Hail Mary" when you wake up or before you go to bed. Another good idea is reading a bit from the Bible, because when we read the Bible we let God speak to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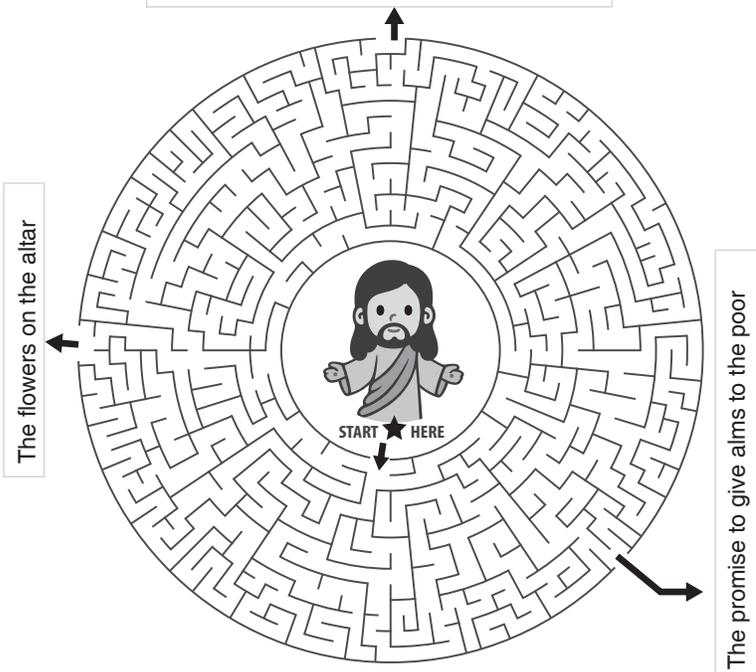


What are some little things you could do for Lent? Try to do things that will help you think a bit more about God every day. <<https://www.thekidsbulletin.com>>

## Lenten Maze

In Lent we go into the desert to imitate Jesus by fasting and praying for 40 days to prepare for Easter! Then, during Easter Sunday Mass, the priest will ask every one of us to "**renew**" something. What do you think it is? Solve the maze to find out!

The promises made for us at our baptism



### 주일학교 공지 사항

SPC SUNDAY SCHOOL ANNOUNCEMENT

#### 1 No Sunday School Classes until Mar 15

- **Sunday School classes as well as Sacrament classes** (First Holy Communion & Confirmation) **will be closed temporarily until Mar 15<sup>th</sup>** amid growing concerns over the coronavirus. (COVID-19)

#### 2 Jr. High Family Lenten Retreat

- **Whom:** 6<sup>th</sup>-8<sup>th</sup> grade students with parents/guardians (MANDATORY REQUIREMENT FOR CONFIRMATION CLASS STUDENTS)
- **Date:** The date has been postponed and a new schedule will be announced later.
- **Location:** Hasang Building
- **Fee:** \$20 per Family
- **Sign up today at Sunday School Office! Registration is currently being accepted.**

#### 3 SERVE 2020 (Jr. High WorkCamp) Registration

- **Whom:** Rising 7<sup>th</sup>-9<sup>th</sup> grade students
- **Date:** July 5-July 8, 2020
- **Fee:** \$50 per participant
- For more information, stop by Sunday School Office

## ○ 안나회 정기 모임

지난 2월 16일(일) 안나회 정기 모임이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열렸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전하며 늘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생일을 맞은 10명의 자매들을 회원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날 특별히 이혁찬(한의학 박사) 형제가 ‘심장병 일반 상식’ 및 ‘몸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 레지오 마리아 동중부 간부 교육



레지오 마리아 동중부 간부 교육이 하늘의 문 꼬미시움 주최로 지난 23일(일) 친교실에서 있었다. 하늘의 문 꼬미시움 산하 6개 꾸리아와 볼티모어 한인 꾸리아가 참여한 이번 교육에 앞서 백인현 안드레아 지도 신부님께서 멀리 NC 샬럿, 그린스보로, 볼티모어, 리치몬드 등에서 모인 총 150여 명의 레지오 단원들을 격려하며 교육의 의미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실천하고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셨다. 또한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던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행동에 옮기는 레지오 단원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셨다.

예수 탄생 예고 축일에 즈음에 하는 레지오 갱신식, 아치에스 행사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간부 교육에 참여한 간부들은 레지오 마리아에 단원의 의무를 다시금 되새기고, 간부별 분담 토의 시간을 통해 의문점과 개선점 등을 토의하고 경험을 나눴다. 우리들은 총 4시간에 걸친 친교와 재 교육의 시간 후 밝은 모습으로 각 본당으로 돌아가며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시금 다짐했다. <하늘의 모후 꼬미시움 단장 정선화 루시아 / 사진: 전용진 라우렌시오>

BOYS

## Quo Vadis SUMMER DISCERNMENT CAMP



**Quo Vadis Camp 2020** will be July 12-16. The registration lottery will open March 3-31. To be added to the email list, contact [vocations@arlingtondiocese.org](mailto:vocations@arlingtondiocese.org).

### About Quo Vadis Camp

- Quo Vadis Camp is a great opportunity to explore your vocation, grow in prayer and friendship, and learn more about the priesthood and seminary life.
- It's five days and four nights at Mount St. Mary's Seminary with other young men as well as the seminarians, priests and religious brothers who staff the camp.
- The mornings include Mass and talks, the afternoons are sports and recreation, and evening events are a mix of spiritual and fun. There is also a pilgrimage to the Grotto of Our Lady of Lourdes.

**WHEN** Sunday, July 12 - Thursday, July 16, 2020

**WHO** Rising 9-12 graders (Boys only)

**COST** \$220/camper  
(Payment plans are available.  
Financial aid is available  
by SPC Vocations Committee.)

### More about the Camp's Lottery /Registration Process:

Due to the overwhelming popularity of Quo Vadis Camp and FIAT Camp, registration is done by lottery. The lottery will be open from **9:30 a.m. March 3** through **midnight March 31**, and names will be drawn during the first full week of April. Those receiving a spot will receive an email by Tuesday April 14<sup>th</sup> letting them know if they have a spot in the 2020 camp.

## 코로나19 감염 예방 협조문

- 성당 출입 제한:** 현재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우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근 2주 이내에 한국, 중국 또는 해외성지순례/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본당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 미사와 신심에 꼭 필요한 활동이나 단체 모임 외에는 모임을 자제해 주십시오.
- 신심과 관련되지 않은 각종 취미 동호회 활동은 당분간 금지합니다.
- 특히 많은 인원이 밀집된 공간에서 하는 모임은 통제합니다. 유아와 그의 부모,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들, 독감 증상이 있는 분들은 성당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으로 영하는 영성체, 개인별 안수, 평화의 인사 때 하는 악수나 포옹을 금지합니다.
- 고해실을 폐쇄합니다.(주일-도사실/평일-소제약실)

이 모든 상황이 하루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신자들 모두가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제82차 예비신자 모집

- 입교식 : 3월 8일(일) 오전 11:30 (하상관 #110)
- 등록 : 매 주일 선교부 테이블 (8시, 10시 미사 후)
- 문의 : 이인표 가브리엘 (703)851-2364

### 8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3월 8일(일) 오후 1시 (B-1,2)

### 9 바오로회 월례회

- 일시 : 3월 8일(일) 오후 12:30 (친교실)

### 10 하상 성인학교 개강 연기

- 하상 성인학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계로 개강을 4월로 연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단체부 주차 주일 안내

- 단체부에서 본당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단체부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날짜	단체명
3월 1일	꾸르실로
3월 8일	레지오
3월 15일	성령기도회 / 파티마
3월 22일	베드로회 / 요한회
3월 29일	루카회 / 바오로회

### 12 하상 한국학교 여름학기 등록 안내

- 수업 기간 : 6월 22일(월) - 7월 31일(금) 6주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30 - 오후 3:30)
- 대상 : Rising K - 12th (선착순 180명)
- 등록 : 3월 7일(토), 오전 9:30 - 오전 11:30  
(교적번호 지참-교우를 위한 등록이므로 이 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 하상관 교무실 / 성당 웹사이트  
www.stpaulchung.org
- 학비 : 등록비 \$50 (환불 안함)  
첫째 \$590, 둘째 \$570, 셋째 \$550 (등록비 포함)
- 열정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실 교사와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 문의 : 김정선 아가다 교감 (571)217-8941

### 13 부활제대 장식꽃 봉헌 신청

- 부활제대 장식을 위해 꽃을 봉헌해 주실 분은 성당 현관 입구 제대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Daylight Saving Time 시작

- 다음 주일(3월 8일)부터 Daylight Saving Time이 시작됩니다. **오전 2시가 오전 3시로 1시간 빨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된 일정: 사순 특강 1·2, 소공동체 기도회, 병자영성체, 하상 성인학교 강사회의

### 2020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 약정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주교님 사목 보조비를 약정 받습니다. 2020년 우리 본당에 할당된 금액은 \$156,000 입니다.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2차 헌금

이번 주일은 Black and Indian Mission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사순 제1주간 : 집회 41 - 45, 2 테살 3

### KACM TV 하이라이트

- 3월 5일(목) 오후 5:00-6:00
- 3월 7일(금) 저녁 8:00-9:00
- 3월 8일(일) 오전 6:00-7:00



- 가톨릭 뉴스
- 위대한 성인들 (14) : 윤원진 비안네신부, 성모님의 12개 이름

###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 3월 4일(수) 오전 6:15-6:45
- 3월 7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황창연 신부님의 강의 '살 꺼안기'(2부)
- ※ 라디오방송에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0년 2월 23일(연중 제7주일)

주일헌금	\$7,254.30
교무금	\$7,585.20
교무금(크레딧카드)	\$3,890.00
감사헌금	\$0.00
2차헌금	\$0.00
<b>합계</b>	<b>\$18,729.50</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배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 NG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 구역부에서 본당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주일	구역
첫째 주	페어팩스 3, 버크
둘째 주	센터빌,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셋째 주	라우든, 프린스 윌리엄, 페어팩스 2
넷째 주	페어팩스 1,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 기도해 주세요

###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영화, 온규희(발바라),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토),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문(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경(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셈마), 최창일(토마스), 강재하(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브리엘),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김성래(안나), 이영민(다윗), 한양수(스테파노)

###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 모임
3월 1일(일)	사순 제1주일	구역임원 교육(오전 11:30, B-1,2), 81차 영세자 환영식(오전 11:30, A-1,2)
2일(월)	사순 제1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3일(화)	사순 제1주간	평일미사(오후 7:30),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성령 기도회(오후 8시)
4일(수)	사순 제1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5일(목)	사순 제1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6일(금)	사순 제1주간	평일미사(오후 7:30, 성체강복), 회장단 회의(오후 8:10)
7일(토)	사순 제1주간	평일미사(오전 7시),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성당), 파티마 첫 토요일(오후 6:15, 성당)
3월 8일(일)	사순 제2주일	단체장 회의(오전 11:30, B-3,4),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1,2), 주일학교 교사회의(오후 1시)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b>허진 변호사</b>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베스트 사인</b>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b>뉴잉톤 오토바디</b>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b>안 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b>소아전문 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정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현훈 (마르코) 센터빌,철타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b>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b>커머셜 김준 부동산</b>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태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b>와니 건축</b>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b>원 통증 · 재활</b>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b>뉴욕라이프</b>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b>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b>제니스김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b>Euromotor Cars Mercedes-Benz</b> 유스티노 한 703-855-8710
<b>Kim's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 703-425-4600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박정훈(요한) 치과</b>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b>CORE 물리치료</b>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b>ASSA 종합보험</b>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b>워싱턴 노인 복지센터</b>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b>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b>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b>경희 바울 한의원</b>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b>프렌즈 헬스케어/데이케어</b> 간병 및 물리치료 데이케어 서비스 임 에스더 703-819-0360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형법, 개인상해, 파산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재무설계</b>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b>DK 건강 보험</b> 1955년생 메디케어 무료상담 및 신청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b>클로이 양 부동산</b> Giant Realty Inc. 다운사이징 / First time home buyer 양윤정(카타리나) 703-865-1026	<b>GCoop 케어셀라</b> 천연 고기능성 화장품 맑고 투명한 물광피부 약속 김은희(글라리아) 703-732-3836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톨릭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